

美 일타뷰티 1위·1400개 매장 진입... ‘대형화 전환점’ 맞는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K뷰티’ 국가대표로 떠올랐다.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을 예고하며 K뷰티 기업으로서 사세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뷰티테크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해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현재 전통 뷰티 성수기인 4분기에 돌입해 있어 분기 실적 극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에 ‘메디큐브’가 송출되고 있다.

이미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797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35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05%, 누적 영업이익은 183% 커졌다.

오는 4분기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새해 등 특수 기간이 계속되면서 쇼핑 행사가 연달아 진행된다. 에이피알은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 연말에 더욱 적극적으로 쇼핑에 나서는 미국 등 서구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출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시가총액으로도 기업 가치를 증명해 냈다. 이달 초 기준,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2월 말 코스피 신규 상장 당시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약 2조원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지난 6월과 8월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차례로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1위로 우뚝 섰다.

이처럼 K뷰티 대형화를 이끌고 있는 에이피알은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이뤘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 공략하며 브랜드 영향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256% 늘어난 3176억원의 누적 매출을 냈다. 이는 전체 누적 매출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약 530만 개에 달한다.

토너 패드는 화장솜 크기의 패드에 스킨케어 성분을 흡수시킨 형태로, 클렌징, 스킨케어, 마스크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에이피알은 슈퍼시카 토너패드, 딥 비타C 패드, 레드 석시닉 애씨드 패드, 엑소솜 시카 요철 진정 패드 등 차별화된 성분을 갖춘 신제품을 지속 출시했다. 올해는 ‘PDRN 겔 패드’를 새롭게 내놓았다.

아울러 에이피알 제품군의 혁신성은 뷰티테크 기술력에서 확인된다.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은 올해 9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00만 대를 돌파했다. 주력 제품인 ‘부스터 프로’는 같은 기간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 대를 돌파하며 브랜드 전체 성장에 기여했다.

에이피알은 일찍이 K뷰티 영역을 뷰티테크로 확장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아왔다. 2021년 3월 첫 번째 제품인 ‘더마EMS샷’ 출시한 후 휴미티를 겨냥한 신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왔다.

가장 최근 선보인 신제품은 ‘하이포커스샷 플러스’다. 지난해 9월 선보인 ‘하이포커스샷’을 출시 1년여 만에 재단장한 것으로 스킨부스팅 기능을 더했다. 피부 겹부터 속까지 이중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적용해 온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기술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스킨부스팅 기술을 결합했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연구개발(R&D) 전문 인력을 확보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핵심 기술 자산을 내재화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또 서울 가산과 경기 평택에서 에이피알팩토리나 디바이스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제3공장의 경우, 차세대 생산 동력 역할을 한다. 향후 K뷰티에서 K에스테틱으로 주력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에이피알은 해당 공장에서도 자체 개발 공법을 통한 순도 높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생산한다. 알래스카산 연어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통된 기존 PDRN 소재의 순도를 뛰어넘는 원료를 생산하는 한편 직접 생산을 통해 중간 비용을 낮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스킨케어, 뷰티 디바이스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킨부스터부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신소재까지 고부가가치 뷰티테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내 K뷰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한국 뷰티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디큐브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에이피알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과 함께 연금아 불어나라 똑딱!

은퇴 후 자유로운 라이프를 원한다면
지금, KB증권에서 연금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은빈개비가 들려주는 KB증권 연금 이야기

연금이 어렵다구요? 개비증권에선 어렵지 않아요. KB증권 연금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연금 계좌 활용 노하우!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6시 라이브 웹세미나가 진행되니 놓치지 마세요.

웹세미나
바로가기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132호(2025.08.20~2026.08.19)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향>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KB증권